



스위스 부티크 호텔.

스위스, 부티크 호텔을 정의하다

기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강력한 미적 감각을 더해라

투숙 자체가 특별한 체험이 되도록 디자인 하라

디테일까지 섬세히 디자인 하라

개별적인 성격을 부여하라

기업 철학과 조화를 이루는 컨셉을 제시하라

디자인 컨셉이 호텔 요리에 반영되도록 하라

스위스의 다양한 호텔 가운데, “부티크 & 디자인 호텔” 라벨을 단 호텔이 있다. 취향과 품격이 가득 담긴 공간이다. 최근 ‘부티크 호텔’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사용되지만, 과연 어떤 호텔이 ‘부티크 호텔’일까? 스위스는 그 정의부터 내렸다.

1. 영감을 불러일으킬 것(Inspiring)

독특한 건축, 명료한 디자인 언어 덕분에 부티크 & 디자인 호텔은 투숙객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면서도 감각을 자극하는 효과를 준다.

2. 신선할 것(Refreshing)

이런 호텔에서는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이 확연히 눈에 띈다. 신선한 컨셉은 호텔의 곳곳에서 투숙객들을 놀라게 만든다.

3. 개별적일 것(Individual)

부티크 호텔이라면 인테리어와 서비스에 있어 특히 개별적이며 개성 넘쳐야 한다.

“부티크 & 디자인 호텔”로 인증받기 위해 각 호텔은 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까다롭게 적용된다.

1. 기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강력한 미적 감각
2. 건축 및 서비스에 있어 탁월한 퀄리티
3. 투숙 체험에 있어 모든 요소를 고려한 디자인 컨셉
4. 디자인 컨셉의 자질이 반영된 요리
5. 디테일까지 섬세히 다룬 디자인
6. 개별성 & 개성을 담은 특징
7. 기업 철학과 조화를 이루는 컨셉

스위스는 건축, 디자인, 문화를 좋아하는 투숙객을 위해 다양한 개별 시티 호텔, 창의적인 호텔 컨셉, 럭셔리하고 시크한 알프스 산장 호텔을 선보인다. 작지만 섬세한 부티크 호텔은 개성, 개별성, 스타일로 그 특징을 지을 수 있다. 여기 소개하는 부티크 호텔은 컨셉, 건축,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확고하면서도 명료한 디자인을 통해 한 공간에 접근한다.

1. 아르데코 호텔 몬타나(Art Deco Hotel Montana)****s, 루체른(Luzern)

루체른 호수와 도시, 알프스 산이 이루는 장관이 펼쳐지는 높은 곳에 위치에 있다. 부티크 호텔다운 42 개의 아르데코 객실, 19 개의 펜트하우스 객실, 스칼라 레스토랑과 키친 클럽의 뛰어난 요리, 루이 바 및 헤밍웨이 럼 라운지의 전설적인 이벤트와 데이 스파는 현지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혁신적인 디자인이 과거의 우아한 아르데코 장식과 만나 조화를 이룬다. 시크한 인테리어, 반짝이는 새틴과 벨벳 패브릭, 화려한 패턴과 컬러, 넉넉한 객실이 인상적이다.

2. 호텔 벨러리브(Hotel Bellerive)***s, 체르마트(Zermatt)

가운이 운영하는 트렌디한 호텔로 마을 한복판에서 마테호른(Matterhorn) 뷰를 선사해 준다.

3성급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스타일리쉬한 객실, 편안한 스위트룸에는 네스프레소 머신이 갖춰져 있고, 여러 객실에는 발코니도 딸려 있다. 어반 라이프스타일과 발레(Valais) 지역 특유의 샬레 스타일을 과감하게 접목한 디자인이 눈에 띈다. 웰니스 시설에는 웰풀, 스팀 동굴, 사우나가 마련되어 있고, 트렌디한 바에서는 벽난로가 있는라운지를 즐길 수 있어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인기다.

3. 알렉스레이크프론트 라이프스타일 호텔 & 스위트(Alex - Lakefront Lifestyle Hotel & Suites)****s, 취리히(Zurich)

2019년에 재오픈한 5스타 수페리어급 호텔로, 취리히 호숫가에 자리해 있다. 주방이 딸린 스튜디오 아파트 객실도 있고, 패밀리룸이나 스위트룸도 있다. 지중해풍 레스토랑은 생선 요리로 유명한데, 부야베스나 참치 요리도 맛볼 수 있다. 커다란 선 테라스와 바도 있고, 스파, 풀장 등의 시설도 훌륭하다. 최고의 위치에 자리한 럭셔리 부티크 호텔로, 런던의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브래디 윌리엄스(Brady Williams)가 온기와 조명을 신경 써서 완성한 작품이다. 호수를 향한 파노라마 창문에서는 대단한 뷰를 선사한다. 호텔이 직접 운영하는 다양한 워터 스포츠도 인기다.

4. 호텔 코르 데잘프(Coeur des Alpes)****, 체르마트(Zermatt)

마테호른 뷰가 마음을 설레게 한다. 취향을 한껏 고조해 데코레이션에 신경을 썼는데, 쾌적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가 감돈다. 현대적인 알파인 디자인에는 목재와 돌, 유리를 적절히 섞어 사용했다. 럭셔리한 스파와 야외 웰풀도 눈에 띈다. 지난 10년 동안 부티크 호텔 중에서도 선도적인 곳으로 꼽혔다. 건축과 인테리어는 유명한 디자이너, 하인츠 율렌(Heinz Julen)의 작품이다. 인상적인 유리 외관, 거실에 자리한 럭셔리한 욕조, 벽난로, 바위 사이에 자리한 웰니스 시설은 알프스적인 예술을 보여준다.

5. 아메론 취리히 벨러리브 오 락(AMERON Zürich Bellerive au Lac)****s, 취리히

1928년에 우아한 아르데코 스타일로 지어진 전통이 깃든 호텔이다. 2021년, 리노베이션을 거쳤는데, 널찍한 객실과 스위트룸은 글래머러스하다. 오리지널한 요소에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스타일리쉬한 색채감을 더해 미적 감각을 한껏 고조시켰다. 현대적인 아르데코 스타일의 객실 여럿은 발코니에서 호수 뷰를 선사한다. 힙한 레스토랑에서는 비스트로 스타일의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여름이면 역사적인 리도가 있는 호숫가 산책로에서 잠시 거닐며 수영을 하다 가라고 발걸음을 붙잡는다.

6. 호텔 안커(Hotel Anker)***, 루체른

필라투스플라츠(Pilatusplatz) 광장에 있는 부티크 호텔로, 2016년에 문을 다시 열었다. 1914년부터 커뮤니티 센터로 운영되던 곳이 루체른에서도 과감하고 눈길을 사로잡는 디자인으로 변신했다. 오리지널 하면서도 크리에이티브한 시티 호텔로, 과거와 현대가 상호작용을 하며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40여 개의 객실에서는 리기와 필라투스, 성곽의 뷰가 들어온다. 요스퍼 그릴(Josper Grill) 레스토랑에서는 직화로 구운 신선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다양한 진을 갖춘 트렌디한 바와 풍성한 조식 뷔페도 인기다.

7. 유니크 호텔 포스트(Unique Hotel Post)****s, 체르마트



극도의 취향을 반영한 디자이너 호텔로, 알파인 시크 스타일을 선보인다. 트렌디한 4 스타 수페리어급 호텔은 시골풍을 모던한 디자인과 잘 섞었다. 돌과 목재가 함께 어울려 우아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200 년이나 된 건물이 미래 지향적인 건축물로 아름답게 재탄생했다. 체르마트 마을 중간에 있는데, 우아한 웰니스 시설도 갖췄다. 객실과 스위트룸에서는 마테호른 뷰가 선명히 들어온다. 미식 레스토랑으로도 인기인데, 고미요 점수 13 점에 빛나는 다양한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다. 바와 나이트클럽은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인기다.

8. 식나우 하우스 앤 가든(Signau House and Garden), 취리히

취리히 제펠트(Seefeld) 구역에 있는 고요의 천국이다. 역사적 유물로 보호받고 있는 1912 년 빌라가 부티크 호텔로 변신했다. 1912 년에 지어진 당시 그대로 완벽하고 사랑스럽게 복원되었다. 세심한 디자인은 클래식과 앤틱한 분위기를 뒀다. 개별적으로 디자인된 객실과 스위트룸은 고급스러운 헤링본 목조 바닥과 높은 천고, 세련된 컬러 감각이 남다르다. 낭만적인 파빌리온이 있는 외딴 정원도 아름답다. 단품으로 주문할 수 있는 조식 중에는 홈메이드 특별식도 준비되어 있다. 특히 호텔 전용 시네마와 벽난로 라운지, 다양한 살롱과 노스텔직한 윈터 가든도 눈길을 끈다.

9. 그로이리히 디자인 & 부티크 호텔(Greulich Design & Boutique Hotel)****, 취리히

취리히의 패셔너블한 지역인 디스트릭트 4 에 위치한 이 호텔은 심플한 디자인과 고유의 인테리어를 지녔다. 전면이 유리로 된 객실과 스위트룸이 인상적인데, 넓은 부지에 딸린 안뜰은 작은 자작나무 숲으로 꾸며져 있다. 북유럽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과 고전적인 디자인이 공존한다. 2003 년 지어진 질푸른 색의 건물은 바우하우스(Bauhaus) 건축의 엄격함을 떠올리게 한다. 지중해풍의 우아한 레스토랑은 전통 요리를 새로이 해석한 메뉴와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를 선보인다. 세련된 그로이리히 바는 예술가들의 만남의 장소로 인기가 높다. 오후 2 시까지 제공되는 선데이 브런치, 시가 라운지, 자체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대중교통 시설과 가까워 편리하다.

10. 호텔 마티올(Hotel Matthiol)****s, 체르마트

4성급 호텔로 숲의 가장자리, 마테호른(Matterhorn)이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다. 2021 년에 대대적인 레노베이션을 거쳐 아늑한 살레 스타일에 트렌디한 감각을 더했다. 천연 화강암, 오래된 목재, 섬세한 인테리어가 눈에 띈다. 젊고 혁신적인 팀이 이 호텔을 운영한다. 럭셔리한 알프스 스타일이 나무 바닥 객실과 조화를 이룬다. 무엇보다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마테호른 전망이 감탄스럽다. 현대적인 레스토랑 필레 에 피(Filet et Fils)에서 손님들은 다국적 반전을 꾀한 전통 요리를 맛보게 된다. 그 밖에 스템 그로토, 야외 자쿠지가 있는 스파, 스키 인&아웃, 반려견 친화적 호텔, 휠체어 접근 가능한 설비 등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